



## 추백리 진단액 본회에서 일괄 공급

추백리 진단액 공급창구를 일원화, 6월부터 본회를 통해서 일괄 공급하고 있다.

이는 추백리 검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서 추백리의 완전퇴치에 박차를 기하기 위한 것인데, 그동안 상당수의 종계장에서 추백리 검진을 소홀히 하고 있어 농수산부와 가축 위생연구소로부터 추백리검진의 자율적 추진방안과 추백리 근절대책을 강구하라는 공문을 본회에 보내 온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본회는 유관기관과의 협의하에 추백리 검진 진단액 공급을 본회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전국 각 종계장과 협회 도지부 및 본회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 〈참조 1〉

#### 추백리검진 철저 및 진단액 공급

(양계협회→종계장)

084년도에 상당수의 종계가 추백리 검진을 실시치 않았거나 소홀한 실시로 추백리 검진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니 추백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지도계몽은 물론 협회에서 자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시행하라는 농수산부 장관의 강력한 지시가 있어 이철하니 농수산부고시 제84-12호의 추백리방역실시요령에 의거, 보유종계 전

계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정확한 검진을 실시하기 바람

○동 검진을 소홀히하여 피해를 주고 받는 등 사례가 없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확인검사결과 불미스런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검진사업실시에 완벽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에서는 금후 추백리 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에 추백리 검진진단액공급판매체계를 일원화하고 본회를 통해서만 공급판매토록 조치되었으니 각 종계장에서는 필요시마다 소요량을 본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액구입신청 및 공급방법

가. 전화 또는 본회를 직접 방문 신청

나. 신청시는 소요대금(250수분 1병당 1,540원)을 온라인 또는 직접 납부(온라인구좌번호: 제일은행 105-10-041317, 농협 097-1-953 대한양계협회)

다. 신청과 대금이 납부되면 소요진단액을 송부함.

#### ○진단액 판매금액 비교표(250수분)

시중시세	협회공급가격	차액
2,000~2,200	1,540	460~660원

### 〈참조 2〉

#### 추백리검진 철저

(농수산부→양계협회)

• 농수산부 고시 제84-12호(84. 3. 26)인 추백리 실시요령에 의거 종계장 자율로 검진을 실시하고 시도 가

축위생시험소 확인 검사토록 조치된바 있으나 '84년도 추백리 진단액 사용량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당수의 종계가 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추백리 검진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바, 동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백리 검진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양계협회에서는 지도 계몽은 물론 자율적인 추진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3〉

추백리 검색 독려

(가축위생연구소→양계협회)

- 추백리는 법정전염병으로 가축방역상 중요시되어 정부에서는 그동안 추백리 방역실시 요령을 고시하고 추백리 박멸에 노력하여 왔으며,
- 최근에 와서는 귀협회의 자율적 방역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백리방역실시요령을 개정고시하는등 추백리 자율방역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 금년도 상반기 종계군에 대한 추백리 검사 결과를 보면 아직도 높은 양성반응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추백리 검색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바 귀 협회에서는 종계장에 대하여 추백리검색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독려하고, 앞으로 강력한 추백리 근절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축사시설 의무규정에서  
소독 제외키로

- 양축가 자체 실시후  
보사부에서 확인 -

본회와 생산자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의무소독 규정에서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의무소독이 제외되었다.

보사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6월11일, 농수산부령)됨에 따라,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전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의무소독 사항을 변경, 양축가 스스로 실시토록하고 보사부에서 그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참조 1〉

축사시설의무소독

(농수산부→양계협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건사회부에서는 전염병 시행령의 개정전까지 가축사육 시설에 대한 의무 소독사항을 가축전염병에 의거 양축가 스스로 실시토록 한후 그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행정조치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2〉

가축사육시설 소독실시에 따른 협조요청

(보사부→농수산부)

-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가축사육시설의 소독 실시에 대하여 당부에서는 별첨공문 사본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 동 시설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확인토록하여 전염병예방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3〉

소독실시에 따른 행정지시

(보사부→각 시도)

-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시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과 각종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사부는 당해시설에 외부인이 출입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때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축 사육 시설의 경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관계규정이 개정된 점등을 감안하여 이를 의무소독대상시설에서 제외시키도록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관계조항을 개정할 계획임.

- 따라서 동 시행령이 개정되기전까지 가.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동 시설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자체소독을 철저히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소독을 잘 이행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에 가름하여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나. 각종 의료 기관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정한 소독장비에 준한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할수 있음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자체소독을 잘 이행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에 가름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것.

## 위생도계육 유통추진 협조 요청

### -군납용 도계육은

박스포장하고 표시사항 준수해야-

농수산부는 위생도계육 유통추진을 철저히 시행토록 각시도에 지시하고 본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왔다. 한편 특급도계장의 타시도반출 허용은 오는 9월16일로 연기하였다.

### <위생도계육 철저히지시>

• 농수산부에서는 위생적인 도계육 생산 공급으로 국

민보건 향상을 기하고 계육 수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생도계육 유통정책 방안을 수립, 시달한 바 있어 시도별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을줄 사료되나,

• 서울특별시장 건의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지역으로 밀도계육 및 부정 도계육이 대량으로 불법 반입유통되고 있어 계육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하는 바,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성수기 위생계육 유통에 차질없도록 유념 조치하시기 바람.

가. 밀도계 유통방지를 위하여 닭의 적용지역 지정을 계속 추진하고, 특히 경기도 관내 도계장 설치지역은 확대 추진토록 할것.

나. 도계육 포장시 군납용, 가공원료용, 업소용등 대량 실수요분에 대하여는 대포장을 허용하되 반드시 박스 포장하여 포장외부에 용도, 수량(중량)제외원, 반출선등 표시사항을 준수토록 할것.

라. 시도지사의 특급도계장 허가 업무 지연으로 성수기 대도시 도계육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특급도계장의 타시도 반출 허용은 '85. 9. 16까지 계몽 기간으로하여, 도계장의 위생시설 확충 및 성수기 계육 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동기간 이후 특급도계장의 반출통보에 의하여 철저한 위생도계육 유통지도 단속에 임하도록 할것.

## 전염성 양계질병 및 백신교육 개최

### -본회 주관, 대전 중앙가축 전염병연구소에서-

양계질병과 백신사용에 대한 교육이 6월 18·19 양일간 본회 회원, 양계장대표, 농장관리자, 사료공장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윤병성 사장)

본회가 전염성양계질병에 대한 양축가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차원에서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정확한 닭질병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개최한 이번 교육은 전국의 양축가들의 열띤 호응으로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예방약메이커로 최근 시설확충과 민간업체로는 처음으로 전문교육시설을 완비한(50명 동시수강)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에 위탁하여, 전문수의사(수의학박사)들로 구성된 강사진에 의해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본회는 이번 교육의 성과로 보아 하반기에 채란



계 농장주들을 중심으로 금년도 제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6월18일 오후 회사소개(비디오)에 이어 있는 특강을 통해 윤지병사장은 「가축의 질병은 과거의 치료에서 점차 예방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양축가들은 예방약의 개념을 확실히 인식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사장은 또 어린병아리의 질병 발생은 모체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화장 선택시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백신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사용오류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백신사용시에는 설명서를 필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권혁진박사가 뉴캐슬병, 감보로병, 정병탁 생산부장이 전염성 코라이자에 대해 설명했으며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교환했다.

저녁식사후에는 수강생과 강사전원이 참석, 브로일러 및 산란계의 각종 질병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자리를 회의실로 옮겨 교육참석자들간에서 인사를 교환하고 마련된 다과를 즐기면서 우정을 교환했다.

6월 19일 8시부터는 호주에서 일지 귀국한 정영석 박사(호주가축위생연구소, 대학출강)가 「호주와 한국축산의 차이」란 제하의 특강에서 사육규모, 양축가의 교육수준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전하고, 한국에서는 항생물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9시부터는 정병탁부장의 닭의 세균성 질병, 권

혁진박사의 ILT, 마렉, 계두, EDS의 증상·예방·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차연호 전무는 백신의 개발과정, 특성 등을 설명한후, 교육소감을 묻는 설문지를 돌렸다.

이번 교육 참석자들은, 백신제조시설, 부대교육시설, 숙식에 모두들 만족해 했으며, 면학의 의지가 높아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열기가 강의실 분위기를 띄웠다. 교육참가자들은 교육 참가시에 갖고 왔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었다고 밝히고 높은 수준의 강사진과 정확한 질병지식 전달로 앞으로의 양계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정이 너무 촉박했던 관계로 주최자측의 욕심대로 참석자들이 따를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교육중 자유토론내용을 요약한다.

〈문〉 3, 4주령의 건강계에서 급작스런 폐사가 나오는데 이 경우 예방책은?

〈답〉 세균에 의한 질병보다는 너무 덥거나 잘못 먹었을 경우 등 물리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명 발딱병, 맴돌이병, 헬리콥타병으로 지칭되기도 하는데 현재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다.

〈문〉 ILT, IBD의 피해가 큰데, 중앙가축의 경우 14일령 이전에도 가검물 의뢰가 들어오는지?

〈답〉 현재도 들어와 있다. 7일령만 되면 눈이 붓고 고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ILT등으로 판정하기는 곤란하다. 현재 검사중이며 새로운 질병일 수도 있다.

〈문〉 브로일러는 8주면 일생이 끝나는데 여러가지 백신을 일일이 하기 곤란하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백신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없나?

〈답〉 전국의 모든 양계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대표적 모델을 제시할 수는 있다. 육계사육자들은 부화장으로 하여금 백신을 철저히 하여 모체이행기간이 길어지도록 유도해야 하며, 부화장 이곳저곳에서 병아리를 들여오지 말아야 한다. 계속 관심을 가지면 누구라도 좋은 부화장을 선택할 수 있다.

〈문〉 미국에서는 MG, 콕시듐백신이 개발됐다는 데...

〈답〉 콕시듐 등 원충백신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 선전하고는 있으나 아직 국제적으로 공인받지 못하고 있다.

MG예방약도 오래전에 개발됐으나 잘못 사용하면 타질병을 전파할 위험도 있어 시판이 곤란하다.

백신 개발상 질병에 의해 형성된 항체와 백신에 의해 형성된 항체가 구별되어야 할 경우가 많은데 현재 구별방법을 연구중에 있다.

〈문〉 환후시킨 닭과 안한 닭의 부화병아리의 차이는?

〈답〉 환우후 정상회복이 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 경기도 양평에서 -

지난 6월13일(목) 육계분과위원회가 개최 되었다. 다수의 회원이 모인 이날 모임은 본회 회의실에서 지역현황 및 전망 검토를 마친 후, 육계분과 위원회의 친선 및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 용문산으로 장소를 옮겨 그동안 실내에서만 해오던 회의를 야외에서 개최하여 간단한 게임과 오락으로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였다.

7월 회의는 오는 30일(화) 12:00 본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분과위원회가 끝난후 계열화 및 생산자 자조금 제도와 양계질병에 대한 하계양계세미나(롯데호텔건너편 미국문화원, 오후 2시부터)에 전원 참석할 예정이다. 육계분과위원 및 육계생산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 전북지부 채란분과위원장에 박옥룡씨 선임

본회 전북지부(지부장 이한주)는 지난 6월12일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채란분과 위원장에 박옥룡(대덕농장)씨를 보선하였다.

전임 최상기위원장은 가정 사정으로 사임하였다.

## 부화분과소위원회 개최

6월12일 본회 회의실에서 부화분과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초생추 가격은 전국적으로 270~340원의 높은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7월 초순까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그이후 약세를 예상했으며, 지금이 노계 태의 적정시기라고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노계출하의 방법으로 대규모 종계장에서 출하시 타농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서로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서 일시에 홍수출하를 막고 모든 종계업자에게 이익을 줄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또한 부화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주문에 의한 계획된 입란을 정착시킴으로써 가격이 안정되고 입란의 과열을 막을수 있어 생산조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 6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원송대 교수)

6월 채란분과위원회가 17일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회의에 앞서 「Feed-mate68이 산란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원송대(연암축전) 교수의 연구 발표가 있었다.

원송대교수는 생균제제는 항생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료첨가제로 개발되었다고 밝히고, 첨가효과로 브로일러에 있어서 증체, 사료효율 개선, 산란계에 있어서 산란율, 사료효율, 난질 등이 개선되는데, 이는 유산균제제가 가금의 장내에서 부패균의 증식을 억제시키고 유익한 균의 증식조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구결과로 볼때 Feed-mate68은 여름철에 사육하는 산란계에서 다발하는 장염을 예방 및 치료함으로써 산란수를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분과위원들은 최근 장기적으로 바닥 시세를 보이고 있는 난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 하고, 앞으로 계란유통구조개선을 위해 6월중 채란 분과위원들이 일본 채란양계업계 현황을 시찰하기로 하였다.

## 전남지부, 분과위원회 개최

### -양계질병 세미나도 가져 -

전남지부(지부장 안명수)는 지부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임원·채란 및 육계·부화분과 위원, 지역대표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11일 지부사무실에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금년 새로 출범한 집행부의 분기별 업무실적 보고가 있었으며, 전남도 양계인의 비상한 관심이 되어왔던 악덕 계란도매상인의

고발사건 조치에 대한 경과 설명도 있었다.

또, 전남지부각분과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일심동체가 되어 회원의 권익 보호와 양계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헌신적으로 협력하고 매월 1회씩 공동협력회를 가져 강력한 행동의협회로 전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관내 산하단체에서도 계속 선봉적 역할을 다하는 시범단체가 되도록 솔선키로 했다. 특히 악습 상행위 상거래자를 계속 고발조치, 전남권 병아리 사료 전량 사용하기 운동, 폭리하는 부화장 고발문제·불매운동 등에 대해 사태추이를 관망하면서 계속 대처해 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의 차연호전무를 초빙하여 최근 백신의 문제점, 감보로, EDS, AE, ND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참석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다.

이날 세미나는 우양동물가축약품(대표 이명로)이 후원하였다.

## 전국 순회 양계강습회 개최

### 계열화생산·자조금제도·질병

본회는 양계산업의 안정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계열화생산 및 생산자자조금제도와 양계질병에 관한 하계양계강습회를 7월30일부터 8월 6일까지 갖을 예정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양계산업의 생산자자조금제도(check-off)의 추진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전염성 질병 퇴치방향, 마택병 대책등 외국의 전문가와 국내의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전국의 양축가, 관계공무원,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 • 주제 및 강사

양계계열화 추진방법 E. Covell박사(USFGC)  
자조금제도의 필요성 박영인 회장(USFGC)  
한국양계산업의 발전방향

오봉국 교수(서울농대)

한국양계산업의 발전방향

오세정 교수(건국축대)

마택병 예방

조병률 박사(미 위싱턴대)

전염성닭질병예방 이창구 소장(한국바이오테크)

\* 지역별로 4명의 강사가 강의를 하며 세미나 후 양계인 간담회를 갖을 예정이다.

지 역	일	시	장 소
서 울	7 월 30일	14 : 00	미문화원 회의실 (752-2306)
대 전	7 월 31일	14 : 00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53-2323)
전 주	8 월 1일	14 : 00	코아예식장 (72-8338)
광 주	8 월 2일	14 : 00	제일제당 (34-6607)
대 구	8 월 5일	14 : 00	명성예식장 (46-9111)
부 산	8 월 6일	14 : 00	온천예식장 (53-3096)